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언어 환경이 욕설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준 홍**

초 록

청소년의 역량과 환경이 청소년의 욕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희소하다. 본 연구는 이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의 욕설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언어 환경에 주목하여 이것들이 청소년 욕설행동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통계적 검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8)’ 자료 중에서 12~18세 청소년 대상 자료(N=2,306)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언어 환경이 청소년 욕설행동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인식적 차원의 민주시민역량(신뢰와 호혜규범)은 욕설행동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으나, 실천 차원의 민주시민역량(참여활동)은 그렇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맥락의 부정적 언어 환경(가정과 학교에서의 언어폭력 피해경험)은 공히 청소년 욕설행동의 정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욕설행동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청소년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민주시민역량, 언어 환경, 청소년, 욕설행동

* 본 연구논문은 국립국어원이 2012년 9월 7일 개최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연속 토론회(3회차)’에서 저자가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당시 발표논문의 토론자들과 논문의 개선을 위한 훌륭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kjh@nypi.re.kr

I. 서 론

최근 청소년의 욕설 혹은 욕설문화가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계에서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 욕설행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로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욕설의 빈도와 수위를 지적하면서 이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풀기 위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우리 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¹⁾

욕설이란 사전(辭典)적으로 ‘남을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말’, 혹은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욕설은 “대체적으로 비속어나 금기어나 은어나 음담 등으로 이루어져, 추잡하고 비루하며, 비속한 느낌을 주어, 남의 인격을 모멸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힐책하는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관용어적 표현”(김상윤, 2002: 275) 혹은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말’의 한 형태인 욕설은 동시에 이를 발하는/터뜨리는 사람의 독특한 ‘말하기’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김혜숙, 서유민, 2010). 본 연구에서는 욕설이 언어적 행동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욕설 행동’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습관으로 형성된 것이든지 전략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든 욕설은 특수한 행동이고, 욕설을 행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에서 후속 언어와 행동을 특정 방식으로 촉진하거나 제약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청소년의 욕설행동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청소년기의 욕설행동을 문제행동, 이탈, 비행으로 바라보면서 이에 대한 규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시각(양명희, 2012)이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기의 욕설행동을 청소년 하위문화의 산물로서 이해하면서 그들의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길은배, 2012). 대체적으로 청소년 욕설행동의 주된 책임을 청소년이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자의 시각이 대표하고, 그 책임을 예컨대 청소년을 둘러싼 기성문화 등에 물어야 한다는 견해를 후자의 시각이 대표한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논쟁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아니다. 분명한 점은 후자의 시각도 청소년의 욕설이 문제행동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전자의 시각도 청소년의 욕설행동이 청소년 하위문화에 관계되며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삶에 깊

1) 예컨대 국립국어원의 노력을 그 예로 들 수 있다(http://www.korean.go.kr/09_new/)

이 침투해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청소년 욕설행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역량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각각 주목하고자 한다. 만약 청소년의 욕설행동이 예방·교정해야 하는 비행이나 일탈이며 그 책임이 주로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면, 그들에게 욕설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모종의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청소년의 욕설행동이 단지 그들의 하위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환경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욕설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다양한 층위의 사회문화적 조건을 검토해야 하고 그들이 욕설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역량은 욕설로 가는 길을 봉쇄해 줄 수 있고, 청소년의 미약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둘러싼 양질의 환경은 욕설행동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논문은 역량요인과 환경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청소년 욕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변별하고 그 실천적 함의를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청소년의 욕설과 같은 문제행동(problem behaviors)에 대한 역량증진모델(박남희, 2012; 박현숙, 정선영, 2011)은 이미 그 효용성이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역량의 강화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단지 청소년의 문제행동, 위험행동을 제거하거나 이를 더 심화시키지 않도록 접근하는 것과는 차별화된다(Guerra & Bradshaw, 2008).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일탈행동을 위해 중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역량 중에서도 특히 민주시민역량이 중요하다. 자발적 참여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민사회에서 신뢰 유지와 호혜규범의 준수는 타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욕설과 같은 문제행동을 줄이고 범법행위를 지탱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Gambetta, 2000; Lederman, Loayza & Menéndez, 2002). 게다가 민주주의적 공론이 활성화되는 공간일수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나 사적 담론의 공간에서와 달리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이 일정 부분 규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손세모, 2003; 우지숙, 나현수, 최정민, 2009; 이성식, 2005)도 간과될 수 없다.

청소년의 전반적 문제행동의 경우에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은 공히 커다란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많은 연구들이 동의한다(나은영, 박소라, 김은미, 2009; Israel, Beaulieu & Hartless, 2001). 나아가 욕설행동과 욕설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은 가정과 학교임이 확인된다(양명희, 강희숙, 2010). 다른 각도에

서 보자면, 가정이든 학교이든 청소년의 욕설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언어적 요인, 소통적 요인이다(김태경 외, 2012; 이정기, 2011). 정리하자면, 가정과 학교 안의 언어적 환경은 청소년의 욕설행동을 강하게 규정짓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국 본 논문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가정과 학교의 언어 환경이 욕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의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며, 학문적이고도 정책적 의의를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계량적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결과의 일반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논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그들의 역량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각각 그 자체로서 욕설을 비롯한 문제행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우선 이론적으로 그러하며, 나아가 경험적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본 연구는 추론한다. 여기서는 경험적 검증을 하기 전에 우선 이론적 견지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언어 환경 각각이 욕설행동에 대해 가지는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욕설행동

2009년에 이루어진 국제교육성취평가협회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이 시민지식수준에서는 상위권이었지만,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참여활동의 수준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뢰 수준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Schulz, Ainley, Fraillon, Kerr & Losito, 2010).²⁾ 이처럼 다른 많은 나라들과의 국제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의 민주

2) 한국 중학생의 시민지식을 평가하는 검사에서 핀란드와 덴마크가 최고 점수로 576점이고, 이어 한국은 565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국제 평균 500점). 또한 85%이상의 한국학생들이 3수준 중

적 시민역량의 양상이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민주시민역량(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이란 ‘민주주의적 시민사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과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이란 청소년기에 보유하게 되는 이 같은 자질과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민주시민역량이란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자가 충실하게 갖추어 지도록 요구되는 역량으로서 지식과 기능(skill), 성향과 동기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Audigier, 2000; Dahlgren, 2006; Torney-Purta & Vermeer, 2004). 최근 학계에서 민주시민역량 개념에 참여적 행동영역을 포함시키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권해수, 김민성, 강영신, 2011; Audigier, 2000).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논의할 때에는 참여와 관련된 행동의도와 참여행동까지 포괄하는 경향(김태준 외, 2010)이 많다. 이는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시민역량은 실제 참여적 행동을 통해 학습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실천된 참여행동이 향후 성인기의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주요 예측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다차원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민주시민역량 개념은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참여를 통하여 형성되고 증강되는 개인들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과 유사하다(장근영, 박수익, 2011). 민주시민역량을 사회적 자본으로 이론화할 수 있는 근거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관계에 내재한 자원을 자산 내지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개 시민의 역량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Bogard, Sheinheit & Clarke, 2008; Ravanera & Rajulton, 2010).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안에 배태 혹은 내재하여 존재하는 자원들을 심리적·행동적 차원의 투자 혹은 위험감수를 통하여 일종의 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며, 많은 경우 그러한 역량 자체로 이해될 수 있다(Portes, 1998).³⁾

2수준 이상이였다(국제 평균 58.3%). 대다수의 한국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고, 시민성뿐 아니라 사회운동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학교 밖, 학교 내 시민참여는 모두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참가국 중 최하위범주에 속하였다.

3) 사회적 자본 개념을 통하여 준거점을 모색하다고 하더라도 그 용법은 동일하지 않으며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체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역량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정의 -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민주시민역량에 근접한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 되기도 하고(이숙중, 유희정, 2010), 공동체의 사회적 에너지(social energy)로 거시적으로 규정되기도 한다(Walker & Wilkes, 2000).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시민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동일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역량이 한정적 형용사인 ‘민주적(민주주의적)’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됨으로써, 다시 말해서, 보다 제한적으로 민주시민역량으로 기술되고 독해됨으로써 갖게 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민주적’이라는 수식어는 시민역량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범위를 일정한 테두리 안으로 한정하는 효과를 지닌다. 소위 부정적 사회자본(negative social capital)이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소거될 때, 사회적 자본은 시민역량의 개념에 더욱 근사하게 된다.

Coleman(1990, 1998)을 따르자면, 사회적 관계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형의 속성이 중요한데, 이 속성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속성이 관계망마다 같지 않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양상은 그 관계망마다 저마다 다르게 된다(Rutten, Westlund & Boekema, 2010: 864). 간략히 말해서, 개인과 사회에 손실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사회적 자본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어떤 관계망에 연루된 사람들의 특정한 행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지만 그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용하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 있다. 이처럼 부정적 사회적 자본을 배제하고 논의한다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청소년의 민주 시민역량은 사회적 자본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긍정적 사회적 자본으로서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는 매우 많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적절하게 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Adam & Roncevic, 2003). 우리는 민주시민역량을 인식적 차원과 실천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권해수 외, 2011; Uphoff, 1999). 인식적 차원에서 민주시민역량은 신뢰, 호혜규범의 준수(혹은 그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다소 주관적, 비가시적 요소를 말한다. 신뢰와 호혜규범의 준수는 사회적 거래관계에서 타자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이다(Dasgupta, 2010). 즉 상대방에 대해 낙관적 기대를 가지면서 타인의 행동이 자신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로 신뢰자본(trust capital)이며, 이러한 신뢰가 높은 사회적 관계에서 호혜규범⁴⁾이 위반되지 않고 통용된다(이동원, 정갑영, 박준, 채승병, 한준, 2010). 이러한 인식적·심리적 시민역량은 네트워크 안에 연루된 사람들을 공동체의 호혜적 관계에 결속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가장 대표적, 기초적 호혜규범은 상호간 속임수나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천의 차원에서 민주시민역량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 참여활동을 근거로 측정될 수 있다(Pichler & Wallace, 2007). 이는 시민의 사회·정치단체와 다양한 결사체에의 공적 참여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핵심은 각종 자발적 결사체에의 멤버십이다(윤명희, 장아름, 2008). 여기서 말하는 결사체에는 오락적, 사교적, 종교적 성격을 띤 것으로부터 때로 정치적 성격을 띤 것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목적이 상당히 광범위하다(Hall, 2002: 23).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할 때에 이와 같은 공식적 차원에서 참여활동을 응답자들에게 질문하게 된다. 학교청소년의 참여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안(at school) 참여와 학교 밖(outside of school) 참여의 경험에 대해 묻는다. 학교안팎의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가 공통된 경험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지만, 양자 간에는 내용상 일정한 차이도 있다. 학교 안 참여는 토론, 투표 등 의사결정, 임원 출마, 방과 후 활동 등에의 참여를 의미한다. 학교 밖 참여는 정당, 공공정책과정, 환경단체, 인권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를 의미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공식적 참여활동만이 민주시민역량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며, 비교적 덜 공식적 상황에서 친구와의 교제, 이웃과의 대화, 기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조직화된 정규적·비정규적 활동 - 예컨대,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 활동을 자발적으로 기획·실행하기 - 을 통한 타자와의 상호작용 역시 민주시민역량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Hall, 2002).

위와 같은 민주시민역량이 청소년의 욕설문화의 개선과 치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이 직접적으로 욕설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킨다는 연구보고는 희소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인식적, 참여적 역량을 강화하여 공적 토론이 활성화될수록 사적 담론의 공간과 달리 욕설의 사용이 규제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연구(손세모들, 2003; 우지숙 외, 2009; 이성식, 2005)가 있다. 나아가 욕설을 분명 일종의 문제행동으로 규정한다면, 청소년의 욕설행동을 포함한 문제행동 전반에 대하여 민주시민역량의 예방적 효과 등이 있음을 추론하게 하는 문헌의 근거들(Sampson, 1997; LaFree, 1999)이 있다. 한마디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이 일탈행동, 비행, 문제행동, 범죄 등 부정적 사회적 결과들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⁵⁾

5) 청소년과 성인 시민의 민주적 시민역량 혹은 사회적 자본의 증진을 통해서 투표행위와 정치참여(Knack, 1992), 건강(Harpham, Grant, & Thomas, 2002; Kawachi, Kennedy, Lochner,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이 향상된다는 의미는 그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과 호혜 규범의 준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아울러 다양한 참여활동이 증진 된다는 것이다. 민주시민역량이 지역의 범죄율을 낮추고(Lederman et al., 2002) 효율 적 정부 운영과 같은 사회의 공동선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Brehm & Rahn, 1997),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이 일종의 일탈이나 문제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 는 청소년 욕설행동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연구는 추론한다. 그리고 청 소년의 욕설이 상대방을 훼손하는 공격성을 지닌 언어 표현이라는 점에서(장경희, 2010) 호혜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식 차원의 민주시민역량은 특히 그러한 욕설 의 동기가 되는 공격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 그러한 추론이 상당히 타당하 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국내연구로서는 이 같은 결과의 보고가 매우 희소한 실 정이지만 청소년 욕설문화의 개선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 장이 제시된 바 있다(길은배, 2012). 본 연구는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선 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전개될 경험적 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 설을 제시한다.

연구가설 1.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신뢰, 호혜규범 준수, 참여행동)이 청소년 욕설 행동의 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의 언어 환경과 욕설행동

청소년의 욕설행동과 욕설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은 가정과 학 교이며, 청소년의 욕설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언어와 소통적 요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가정과 학교 안의 언어적 환경에 관심을 둔다는 점은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가정의 언어 환경은 부모의 언어행동에 의해 주로 조성되는데, 이러한 외적 환경은

Prothrow-Stith, 1997), 인간행복(Helliwell, 2001)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점 차 누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종속변수들이 범죄나 일탈행동과 부적 상관을 대체로 보이고 있 다는 점에서 간접적이거나 민주시민역량의 욕설행동과 욕설문화에 대한 예방 및 치유 효과를 추론 할 수도 있겠다.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김화수, 2011; 이은경, 오성숙, 2012; Hammer, Farkas & Maczuga, 2010). 부모의 언어행동은 그 자체로서 특정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을 형성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박현선, 이채원, 노연희, 이상균, 2012). 부모와 자녀 간 대화를 비롯한 가족 내부의 언어소통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넘어서서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이자 자녀가 직면하는 가장 원초적 환경이다(Bernal, Bonilla & Bellido, 1995).

가족내부 언어적 환경이 형성하는 기회의 구조는 가족의 관계 안에 내재하는 자원의 총체를 결정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삶의 행복감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된다(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2003; Coleman, 1988; Kovacheva, 2005; Leonard, 2005).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언어 환경이 부정적이라면 어떻게 될까?

선행연구에 따르면(김태경 외, 2012), 가정에서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욕설 등 공격적 언어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에서 부모와 여타 어른이 일삼는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은 청소년의 욕설행동의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다. 가정에서 부모를 비롯한 어른은 청소년이 언어적 행동을 함에 있어서 준거점으로 삼는 주요 인물, 모범적 전형(exemplar)이 되기 때문이다(Ajzen, 1989; Bandura, 1973; Grasmick & Bursik, Jr., 1990).⁶⁾

나아가 학교환경에서 또래들이 행사하는 다양한 종류의 언어폭력 역시 피해학생의 욕설행동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우선 피해학생이 자신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지각하는 가해학생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그 공격성을 내면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Bandura, 1973). 다음으로 학교언어폭력을 피해를 입게 되면, 주변에 학교언어폭력이 만연하다는 주관적 지각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종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효과가 나타난다(Berkowitz, 2004). 결과적으로 학교언어폭력의 피해 청소년은 또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거나 소외감(feeling of isolation)을 면하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동료의 인정과 승인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폭력적 방향으로 조율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Lashbrook, 2000; Lau, Quadrel & Hartman, 1990).

6) 반면, 부모의 긍정적·공감적·수평적·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과 그에 따른 애착(attachment)은 청소년의 욕설의 예방과 감소를 유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가설을 추가 제시한다.

연구가설 2. 청소년의 가정의 부정적 언어 환경(부모의 욕설)이 청소년의 욕설행동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청소년의 학교의 부정적 언어 환경(또래의 언어폭력)이 청소년의 욕설행동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기존 연구들에서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통계분석을 시도할 때 연구대상 집단의 주요 특성이 사실상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한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표본선택이 아닌 경우에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연구문제를 해소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표성 있는 표본자료를 획득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8)’ 자료 중에서 12~18세 청소년 대상 자료이다.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8)’ 자료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0~18세)에 대한 대표성 있는 데이터(국가승인통계 제 11774호)로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달간 전국의 아동·청소년 가구 6,92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규모의 실증조사이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며, 연령별·계층별로 대표성 있는 아동·청소년 지표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은 이 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2009)’를 수행한 바도 있다.

2. 측정 변수

1) 종속(결과)변수

본 연구에서 설명 혹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욕설행동(욕설 사용 정도)이다. 이는 설문문항에서 ‘나는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라는 행동 항목을 조사대상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재나 지난 6개월 내에 여러분이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가끔 그런다(2)’, ‘자주 그런다(3)’의 응답으로써 구분하여 측정하였다(김태경 외, 2012; 양명희, 강희숙, 2010).

2) 독립(영향)변수

(1)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욕설행동의 정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한 주요 독립변수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이다. 이는 청소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에서 인식의 차원(신뢰와 호혜규범의 위반)⁷⁾과 실천의 차원(참여활동)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Harpham, 2002; Ravanera & Rajulton, 2010).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청소년의 신뢰는 대인신뢰로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이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진술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반응을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호혜규범의 위반은 공동생활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지켜야 하는 규범을 위반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는 대리적 진술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반응이 ‘전혀 그렇지 않다(1)’, ‘가끔 그런다(2)’, ‘자주 그런다(3)’의 3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실천의 차원은 민주시민역량의 참여행동을 의미한다. 다음의 5가지 문항, 청소년 관련 문제(교칙제정과 같은 학내 문제)에 대해 의견·소감·견해를 밝히기, 청소년 관

7) 타자에 대한 깊은 신뢰가 형성된 사회에서 구성원들 간의 호혜규범이 준수된다는 점에서 이를 통틀어 인식 차원의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측정한 것은 타당하다(이동원 외, 2010).

런 정책과 행정과정(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식적 의견을 제시하기,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봉사활동 등)을 하기,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는 활동(아르바이트 등)을 하기, 마지막으로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기로 나누어 그 참여도를 각각 묻고 그 응답으로서 ‘전혀 하고 있지 않다(1)’에서 ‘많이 하고 있다(4)’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Cronbach α = .834). 분석을 위해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고 그 평균값이 사용되었다.

(2) 청소년의 언어 환경

청소년의 언어 환경은 청소년의 욕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부모/가정환경 요인과 학교의 부정적 언어폭력 관련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장경희, 2011). 부정적 부모/가정환경 요인은 조사대상자의 부모나 부모역할을 하는 어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욕설/언어폭력의 빈도로써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내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 와 같은 말을 하였다’, ‘부모님이 나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는 세 가지 진술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반응을 ‘전혀 없었다(1)’, ‘1년에 1-2번 정도(2)’, ‘2-3개월에 1-2번 정도(3)’, ‘한달에 1-2번 정도(4)’, ‘1주일에 1-2번 정도(5)’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 α = .810). 분석을 위해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고 그 평균값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학교의 언어폭력 관련(언어를 사용한 놀림, 따돌림, 명예실추, 헐박 등) 부정적 환경 요인은 조사대상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험 관련 진술, 곧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면서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대한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헐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반응을 ‘전혀 없다(1)’, ‘1번(2)’, ‘2-3번(3)’, ‘4번이상(4)’으로 구분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 α = .730). 분석을 위해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고 그 평균값이 사용되었다.

3) 통제변수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통제변수로 고려되었으며, 이들 성별(Ginsburg, Ogletree & Silakowski, 2003; Selnow, 1985), 연령(소재희, 2010; Charkova, 2007), 학업성적(김태경 외, 2012) 변수들은 선행연구에 의해 청소년 욕설행동과 상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부모 소득, 부모 학력은 조사대상자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물어 조사되었는데 이 역시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이 중에서 부모소득은 최근 김태경 외(2012)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욕설행동과 부적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더불어 연령은 12세에서 18세까지 자기응답으로 측정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적은 현재의 전체적 학업성적을 본인이 평가하도록 물었는데, 매우 못함(1)에서 매우 잘함(10)까지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모 소득수준은 부모가 자기보고 하였는데, 100만원 미만(1), 100만원대(2), 200만원대(3), 300만원대(4), 400만원대 이상(5)으로 측정되었다. 부모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하(1), 고등학교 졸업(2), 2-3년제 대학교 졸업(3), 4년제 대학교 졸업(4), 대학원 석사 혹은 박사졸업(5)으로 서열적으로 측정되어 높은 값을 가질수록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냈다.

긍정적 부모/가정 요인으로서 부모와의 애착과 소통의 정도를 측정하였다(박현선 외, 2012; Bernal et al., 1995). 조사대상자에게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써 측정되었다. 다음의 여덟 문항, 곧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부모님은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칭찬을 자주 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나는 부모님께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힘들 때 부모님은 용기를 주셨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신다’는 진술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반응을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Gronbach $\alpha = .909$). 분석을 위해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고 그 평균값이 사용되었다. 이들 문항이 각각 가정생활에서 조사대상자 부모의 긍정적 언어와 애착의 정도를 측정함을 알 수 있다.

3.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는 앞선 이론적 논의와 추론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양적 자료에 대한 경험적·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체표본을 구성하는 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기술통계분석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민주시민역량과 언어적 환경이 욕설행동 정도에 미치는 영향, 즉 선형적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제변수를 투입하고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된 분석에 앞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등을 확인하였다. 통계적인 가설 검정에서 사용되는 기준 값인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을 5%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통계패키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청소년 표본(N=2,306)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자 1,147명(49.7%), 여자 1,159명(50.3%)으로 여자가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15세가 389명(1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세가 387명(16.8%), 16세가 382명(16.6%)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학업성적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중간치인 5단계가 439명(19.0%)으로서 가장 많았고 정규분포 형태를 띠어 1단계(매우 못함)가 48명(2.1%), 10단계(매우 잘함)가 78명(3.4%)으로 나타났다. 부모소득에 따라서는 1000만원대(514명, 22.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0만원대 이상(511명, 22.2%)이 차지하였다. 부모의 학력별로는 4년제 대학교 졸업(1,439명, 62.4%)이 가장 많았다.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과 애착에 따라서는,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추세를 나타내었다. 대인신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신뢰하는 편이 1,348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별로 신뢰하지 않음(562명, 24.4%), 매우 신뢰함(275명, 11.9%), 전

혀 신뢰하지 않음(121명, 5.2%)의 순서로 나타났다. 호혜규범 위반에 따라서는 전혀 위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507명(65.4%)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 대답일 수록 그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반면, 실천영역의 민주시민역량인 참여행동은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매우 낮은 추세를 나타내었다. 부정적 가정환경 요인과 학교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부정적 언어적 경험의 빈도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욕설행동 정도에 따라서는 최근 6개월 내에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청소년(1,199명, 52.0%)이 욕설을 했다는 청소년(1,107명, 48.0%)보다 다소 많았으며, 욕설을 했다는 청소년 중에서 가끔 했다는 청소년(919명, 39.9%)이 자주 했다는 청소년(186명, 8.1%)보다 꽤 많이 보고되었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명(%)
성별	남자	1,147(49.7)
	여자	1,159(50.3)
연령	12세	287(12.4)
	13세	387(16.8)
	14세	374(16.2)
	15세	389(16.9)
	16세	382(16.6)
	17세	294(12.7)
	18세	193(8.4)
학업성적	1 (매우 못함)	48(2.1)
	2	41(1.8)
	3	140(6.1)
	4	208(9.0)
	5	439(19.0)
	6	337(14.6)
	7	378(16.4)
	8	412(17.9)
	9	192(8.3)
	10 (매우 잘함)	78(3.4)
	모름/무응답/결측값	33(1.4)
부모 소득	100만원 미만	439(19.0)
	100만원대	514(22.3)
	200만원대	324(14.1)
	300만원대	432(18.7)
	400만원대 이상	511(22.2)
	무응답	88(3.8)

변 수	구 분	명(%)
부모 학력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2-3년제) 졸업 대학교(4년제) 졸업 대학원(석사 혹은 박사) 졸업 모름/무응답	11(.5) 117(5.1) 256(11.1) 1,439(62.4) 479(20.8) 4(.2)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과 애착 (8항목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평균 〈별로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평균〈그런 편이다 그런 편이다≤평균≤매우 그렇다 무응답	91(3.9) 735(31.9) 1,391(60.3) 85(3.7)
대인신뢰	전혀 신뢰하지 않음 별로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는 편임 매우 신뢰함	121(5.2) 562(24.4) 1,348(58.5) 275(11.9)
호혜규범 위반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 무응답	1,507(65.4) 755(32.7) 43(1.9) 1(.0)
참여행동 (5항목 평균)	전혀 하고 있지 않다≤평균〈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지 않다≤평균〈조금 하고 있다 조금 하고 있다≤평균≤많이 하고 있다 무응답	1,089(47.2) 1,057(45.8) 136(5.9) 24(1.0)
부정적 가정환경 요인 (3항목 평균)	전혀 없었다≤평균〈1년에 1-2번 1년에 1-2번≤평균〈2-3개월에 1-2번 2-3개월에 1-2번≤평균〈한달에 1-2번 한달에 1-2번≤평균≤1주일에 1-2번 정도 무응답	2,015(87.4) 181(7.9) 73(3.2) 35(1.5) 2(.1)
부정적 학교환경 요인 (4항목 평균)	전혀 없다≤평균〈1번 1번≤평균〈2-3번 2-3번≤평균≤4번이상	2,070(89.8) 187(8.1) 49(2.1)
욕설행동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 모름/무응답	1,199(52.0) 919(39.9) 186(8.1) 2(.1)
합계	2,306(100)	

2. 주요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청소년의 대인신뢰, 호혜규범 위반, 참여행동, 부정적 가정환경, 부정적 학교환경, 부모와의 애착 및 소통 등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변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 .01$). 종속변수인 욕설행동과는 민주시민역량의 실천 영역인 참여행동을 제외하고 정적이거나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혜규범 위반(.398), 부정적 가정환경(.260)과 학교환경(.227)은 각각 욕설행동과 정적 상관을, 부모와의 소통 및 애착(-.223)과 대인신뢰(-.147)는 각각 욕설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독립변수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다중공선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⁸⁾

표 2

주요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부모와의 소통·애착	대인신뢰	호혜규범 위반	참여행동	부정적 가정환경	부정적 학교환경	욕설행동
부모와의 소통·애착	1						
대인신뢰	.211**	1					
호혜규범위반	-.212**	-.143**	1				
참여행동	.056**	.304	.011	1			
부정적 가정환경	-.304**	-.095**	.190**	.068**	1		
부정적 학교환경	-.153**	-.071**	.226**	.007	.275**	1	
욕설행동	-.233**	-.147**	.398**	-.002	.260**	.227**	1

** $p < .01$

8) 뿐만 아니라 주된 분석에 앞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공차한계, 분산팽창지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3. 욕설행동에 대한 민주시민역량과 언어 환경의 영향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청소년의 욕설행동 정도를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았으며, 특히 주요 독립변수인 민주시민역량과 언어 환경 요인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욕설행동 정도를 종속변수로, 민주시민역량(인식 차원과 행동 차원)과 언어적 환경 요인(가정과 학교 환경)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학교성적, 부모 소득과 학력 수준)와 부모와의 소통·애착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통제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부모와의 소통·애착 변수만을 투입하여 청소년의 욕설행동도의 영향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3

청소년 욕설행동도의 영향 요인: 다중회귀분석

	Model 1			Model 2		
	B	SE	Beta	B	SE	Beta
<i>민주시민역량</i>						
대인신뢰				-.040	.018	-.045*
호혜규범 위반				.377	.025	.308***
참여행동				-.010	.019	-.010
<i>언어 환경</i>						
부모의 욕설				.124	.021	.128***
학교언어폭력				.121	.028	.091***
<i>통제변수</i>						
성별(여성)	-.050	.027	-.040	-.028	.025	-.022
연령	-.021	.007	-.061**	-.009	.007	-.026
학업성적	-.042	.007	-.131***	-.025	.007	-.080***
부모소득	-.035	.010	-.081***	-.025	.009	-.058**
부모학력	-.005	.019	-.005	-.016	.018	.370
부모와의 소통·애착	-.180	.024	-.170***	-.067	.023	-.063**
상수	2,867	.154		1,528	.168	
F(df)	30,595***(6)			53,569***(11)		
R ² (adjusted R ²)	.082(.079)			.222(.218)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결과를 연구가설 검증과 관련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인식차원 요인(대인신뢰와 호혜규범 위반)은 청소년의 욕설행동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욕설의 정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045$; $p = .023$),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함으로써 공동생활에서 호혜규범을 위반하게 될수록 욕설의 정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08$; $p < .001$). 반면 청소년의 참여행동 차원의 민주시민역량은 청소년 욕설행동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beta = .010$; $p = .621$). 이로써 연구가설 1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의 부정적 언어 환경은 공히 청소년의 욕설행동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 혹은 가정의 어른의 욕설을 자주 경험할수록 청소년의 욕설행동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28$; $p < .001$), 잦은 학교언어폭력 경험 역시 피해청소년의 욕설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1$; $p < .001$). 이로써 연구가설 2와 3이 모두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첨언하면, Model 2에서 통제변수 중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학업성적과 부모소득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즉 학업성적이 낮을수록($\beta = -.080$; $p < .001$), 그리고 부모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일수록($\beta = -.058$; $p = .005$) 청소년의 욕설행동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부모의 빈번한 긍정적 언어표현과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의 욕설행동 정도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3$; $p = .004$). 반면, 통제변수 중에서 성별, 연령, 부모학력의 영향은 Model 2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V. 결론 및 논의

청소년의 발달 단계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 중에서도 ‘어떤 청소년이 특히 욕설문화에 취약한가?’라는 학술적 물음이 제기되고 그 해답이 모색됨으로서 욕설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 청소년의 역량과 환경이 청소년의 욕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희소하다. 본 연구는 이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의 욕설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언어 환경에 주목하여 이것들이 청소년 욕설행동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통계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의 호혜규범 위반은 욕설행동을 줄이거나 늘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증진하는 참여활동은 그 자체로서 욕설행동을 줄여주지는 못했다. 이것은 통계적 의미에서 조사 시점에서 조사대상 청소년의 참여활동은 적어도 욕설행동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증진하는 참여행동, 예컨대 학내 문제와의 관여, 청소년 관련 정책과 행정과정에서의 참여, 자원봉사활동 등에의 참여, 경제적 자립 활동 참여 등 다양한 참여행동이 그 자체로서 욕설감소 효과는 없다면, 이제는 그 참여행동의 빈도나 시간의 총량보다는 그 활동의 질과 콘텐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어떤 참여활동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욕설행동과 같은 일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호혜규범을 함양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참여적 활동 경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⁹⁾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욕설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양질의 민주시민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향후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증강하기 위한 청소년

9) 부수적으로 표 3의 Model 2의 다중회귀분석에서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의 절대치 크기가 가장 큰 요인이 호혜규범의 위반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욕설행동은 속임수와 같은 규범 일탈적 문제행동과 상관되어 있다. 청소년의 욕설행동은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통과 의례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그러한 의례를 경험하는 청소년 집단 안에서도 호혜규범을 위반하고 의심이 많은(낮은 신뢰 수준을 보이는)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욕설을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진실을 지키고 호혜규범을 준수하도록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은 분명 욕설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년 교육의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질은 욕설행동에 관련해서도 깊이 연구될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모와 기타 가정의 어른이 보이는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은 청소년의 욕설행동의 정도를 높이는 위험요인(risk factor)이다. 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고려되고 부모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홍보될 필요가 있다. 점차로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이 언어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김정선, 윤영민, 2011; 심미선, 2007) 부모는 미디어리터러시의 교육자로서 동시에 모범적 언어행동의 전형적 인물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해 가야할 요청에 직면하게 되었다. 민주시민사회의 근간인 신뢰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시민교육의 차원과 목적에서 강하게 역설하는 이론가와 실천가들이 있지만(김한규, 2009; 이재분, 현주, 조성인, 2003; 최은수, 1997), 이를 미디어적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연구와 프로그램은 많지 않으며, 나아가 청소년의 언어행동에의 영향 이슈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학교환경에서 또래들의 언어폭력 역시 피해학생의 욕설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래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경험 빈도와 피해학생의 욕설행동 정도와의 통계적 선형적 연관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학교의 언어 환경에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변해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청소년의 욕설은 문화적으로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근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 욕설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동인(changing agent)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학교라는 장소는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언어적 규범을 공식적 문화를 표상하는 권위와 함께 가르치는 곳이다(Tennessen, 1986).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련의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과 맞물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학교폭력에 절대 관용하지 않는 정책(zero-tolerance policy)으로의 전환, 소위 징벌주의로의 전환(punitive turn)(Hallsworth, 2000; Muncie, 2008)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된 교육철학과 구체적 실천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학교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궁극적으로 또래의 언어폭력을 차단할 수 있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일수록 청소년의 욕설행동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내의 김태경 외(2012)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Ginsburg, Ogletree & Silakowski, 2003; Selnow, 1985),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소재희, 2010; Charkova, 2007) 욕설행동을 빈발한다는 경향성을 보고하였음에도 본 연구는 그러한 경향성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 부모와의 소통·애착은 욕설의 감소를 가져왔다. 부수적으로 부모와의 애착을 유발하는 부모의 언어표현이 가지는 이러한 가치를 부모에 대한 교육 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¹⁰⁾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종속변수로 사용된 욕설행동 정도의 경우,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어 총화평정척도(summated rating scale)의 사용이 불가하여 모수적 검정을 실시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었다(류시현, 윤지현, 2009). 둘째, 본 연구 분석 결과 언론이나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청소년의 욕설 경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욕설행동의 자기보고(self-report)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응답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편향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적 함의를 넘어서서 청소년 욕설행동 예방을 위한 국내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분석·평가를 신지 못했다. 아울러 연구의 제한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10) 가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오랜 기간의 긍정적 소통과 애착의 효과가 순식간의 부정적 언어사용에 의해서 상쇄될 수 있다. 이 경우 예컨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의 언어폭력의 부정적 효과를 만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의 긍정적 커뮤니케이션과 애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때가 있다. 참고로, 다중회귀분석에서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의 절대치 크기를 비교하면 부모의 욕설의 영향이 부모와의 소통·애착의 영향보다 약 두 배 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권해수, 김민성, 강영신 (2011). 학교 기반의 청소년 핵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2(1), 141-173.
- 김은배 (2012). 청소년 언어, 통과의례적 문화이다. **국립언어원 청소년 언어문화개선 연속토론회 자료집**, 1-10.
- 김상윤 (2002). 욕설의 특질에 관한 연구. **전통화법과 화법교육**, 4(1), 271-290.
- 김정선, 윤영민 (2011). 욕설로 대화하는 한국영화: 한국 청소년 관람가 영화에 나타난 폭력적 언어 분석. **한국언론학보**, 55(5), 81-104.
- 김태경, 장경희, 김정선, 이삼형, 이필영, 전은진 (2012). 청소년의 비속어·욕설·은어·유행어 사용 실태와 언어 의식 연구. **국제어문**, 54, 43-93.
- 김한규 (2009). 한국 상황과 민주 시민교육(정치교육): 필요성과 과제. **한국학논집**, 38, 291-312.
- 김혜숙, 서유민 (2010). 청소년 욕하기(cursing)를 줄이기 위한 방법적 연구: 감정표현 글쓰기를 통한 접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4, 41-62.
- 김화수 (2011). 다문화사회와 의사소통: 언어병리학의 지평에 서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160-175.
- 나은영, 박소라, 김은미 (2009). 가족평등대화와 청소년의 인터넷 의존: 자기효능감과 가족갈등의 매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4), 5-49.
- 류시현, 윤지현 (2009). 지역사회영양학 연구에서의 리커트 척도 이용 현황: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4(5), 600-607.
- 박남희 (2012). 역량강화프로그램이 흡연청소년의 니코틴의존도, 흡연유혹 및 자이존 증감, 우울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18(1), 1-8.
- 박현선, 이채원, 노연희, 이상균 (2012).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이중문화적 양육 환경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65-388.
- 박현숙, 정선영 (2011).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모델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41(2), 204-213.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우리나라 12~18세 9%만이 정기적으로 운동!: 2008년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 소개희 (2010). 청소년의 욕설사용과 자아개념 및 충동성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26, 92-123.
- 손세모돌 (2003). 인터넷 게시판 글 제목의 욕설/비속어 사용과 익명성의 관계. **텍스트언어학**, 15, 169-198.
- 심미선 (2007). 지상과 텔레비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연구: 사회가치 개념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8(2), 116-155.
- 양명희 (2012). 청소년 언어, 문제 있다. **국립언어원 청소년 언어문화개선 연속토론회 자료집**, 15-29.
- 양명희, 강희숙 (2010). **학교생활에서의 욕설 사용 실태 및 순화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우지숙, 나현수, 최정민 (2009).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게시판 내 글쓰기 행위 및 비방과 욕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8(1), 71-96.
- 윤명희, 장아름 (2008).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생활역량 비교분석. **미래청소년학 회지**, 5(4), 49-66.
-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2003).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발달과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연구모형. **사회과학연구**, 19(2), 181-213.
- 이동원, 정갑영, 박준, 채승병, 한준 (2010).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 되는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성식 (2005).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기존 요인들과의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1), 77-108.
- 이숙중, 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13.
- 이은경, 오성숙 (2012). 어머니의 언어사용 환경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양상. **열린유아교육연구**, 17(4), 177-205.
- 이재분, 현주, 조성인 (2003). 초등학교 시민교육의 실제와 개선방향: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0(1), 323-345.
- 이정기 (2011). 청소년의 성향적 휴대폰 이용동기와 중독, 언어폭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경기 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2), 365-401.

- 장경희 (2010). 국어 욕설의 본질과 유형. **텍스트언어학**, 29, 401-427.
- 장경희 (2011).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 장근영, 박수익 (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은수 (1997). 학교교육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연구: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사회학연구**, 7(4), 19-41.
- Adam, F., & Roncevic, B. (2003). Social capital: Recent debates and research trends. *Social Science Information*, 42, 155-183.
- Ajzen, I. (1989). Attitude structure and behavior.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pp. 241-274). Lawrence Erlbaum, Hillsdale NJ.
- Audigier, F. (2000). *Project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Basic concepts and core competencies for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Oxford, England: Prentice Hall.
- Berkowitz, A. D. (2004). *The social norms approach: Theory, research and annotated bibliography*. Higher Education Center for Alcohol and Other Drug Abuse and Violation Prevention, U.S. Department of Education.
- Bernal, G., Bonilla, J., & Bellido, C. (1995). Ecological validity and cultural sensitivity for outcome research: Issues for cultural adaptation and development of psycho-social treatments with Hispanic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3, 67-82.
- Bogard, C. J., Sheinheit, I., & Clarke, R. P. (2008). Information they can trust: Increasing youth voter turnout at th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 Politics*, 41(3), 541-546.
- Brehm, J., &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Charkova, K. D. (2007). A language without borders: English slang and Bulgarian learners of English. *Language Learning*, 57(3), 369-416.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ahlgren, P. (2006). Doing citizenship: The cultural origins of civic agency in the public spher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9(3), 267-286.
- Dasgupta, P. (2010). Social capital and economic performance: Analytics. In Ostrom, & Ahn (Eds.), *Foundations of social capital*. Edward Elgar Publishing.
- Gambetta, D. (2000). Mafia: The price of distrust. In D.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chapter10, pp.158-175). electronic editio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Oxford.
- Ginsburg, H. J., Ogletree, S. M., & Silakowski, T. D. (2003). Vulgar language: Review of sex differences in usage, attributions, and pathologie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5(1), 105-116.
- Grasmick, H. G., & Bursik, Jr., R. J. (1990). Conscience, significant others, and rational choice: Extending the deterrence model. *Law and Society Review*, 24(3), 837-861.
- Guerra, N. G., & Bradshaw, C. P. (2008). Linking the prevention of problem behaviors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re competencies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risk prevention. *New Direction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22, 1-17.
- Hall, P. (2002).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distribution of social capital. In R. D. Putnam (Ed.), *Democracies in flux: The evolution of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society*, OxfordUP2002, 21-57.
- Hallsworth, S. (2000). Rethinking the punitive turn: Economies of excess and the criminology of the other. *Punishment & Society*, 2(2), 145-160.
- Hammer, C. S., Farkas, G., & Maczuga, S. (2010). The language and literacy

- development of head start children: A study using the family and child experiences survey database.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41, 70-83.
- Harpham, T. (2002). *Measuring the social capital of children*. Young Lives/An International Study of Childhood Poverty.
- Harpham, T., Grant, E., & Thomas, E. (2002). Measuring social capital within health surveys: Key issues. *Health Policy and Planning*, 17(1), 106-111.
- Helliwell, J. (2001).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Kentucky, USA.
- Israel, G. D., Beaulieu, L. J., & Hartless, G. (2001). The influence of family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on educational achievement. *Rural Sociology*, 66(1), 43-68.
- Kawachi, I., Kennedy, B. P., Lochner, K., & Prothrow-Stith, D. (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9), 1491-1498.
- Knack, S. (1992). Civic norms, social sanctions, and voter turnout. *Rationality and Society*, 4(2), 133-156.
- Kovacheva, S. (2005). The role of family social capital in young people's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Bugaria. *Sociologija*, 46, 211-226.
- LaFree, G. (1999). A summary and review of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ies of homicide. In M. D. Smith, & M. A. Zahn (Eds.), *Homicide: A Sourcebook of Social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Lashbrook, J. T. (2000). Fitting in: Exploring the emotional dimension of adolescent peer pressure. *Adolescence*, 35, 747-757.
- Lau, R. R., Quadrel, M. J., & Hartman, K. A. (1990). Development and change of young adults' preventive health beliefs and behavior: Influence from parents and pee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240-259.
- Lederman, D., Loayza, N., & Menéndez, A. (2002). Violent crime: Does social

- capital matter?.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50(3), 509-539.
- Leonard, M. (2005). Children, childhood and social capital: Exploring the links. *Sociology*, 39(4), 605-622.
- Muncie, J. (2008). The 'punitive turn' in juvenile justice: Cultures of control and rights compliances in western Europe and the USA. *Youth Justice*, 8(2), 107-121.
- Pichler, F., & Wallace, C. (2007). Pattern of formal and informal social capital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2), 423-434.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 Ravanera, Z. R., & Rajulton, F. (2010). Measuring social capital and its differentials by family struct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5, 63-89.
- Rutten, R., Westlund, H., & Boekema, F. (2010). The spatial dimension of social capital. *European Planning Studies*, 18(6), 863-871.
- Sampson, R. J. (1997). The embeddedness of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A community-level perspective on urban violence. In J. McCord (Ed.), *Violence and Childhood in the Inner Cit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thirty-eight countries*.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elnow, G. W. (1985). Sex differences in uses and perceptions of profanity. *Sex Roles*, 12(3/4), 303-312.
- Tennessen, C. (1986). "Talking to me of disaster" : Authoritative discourse in the schools.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17(3), 131-144.
- Torney-Purta, J., & Vermeer, S. (2004). *Developing citizenship competencies from kindergarten through grade 12: A background paper for policymakers and educators*. Denver: National Center for Learning and Citizenship.

- Uphoff, N. (1999).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Learning from the analysi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P. Dasgupta, & I.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World Bank.
- Walker, P., & Wilkes, I. (2000). *Prove it! Measuring the effect of neighborhood renewal on local people*. London: New Economics Foundation.

ABSTRACT

The effects of 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d linguistic environment on swearing amongst adolescents

Kim, Jun-Hong*

The present study tests the effects of 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d linguistic environment on swearing amongst adolescents in a Korean context. Utilizing data (N=2,306)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the study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o test the association of civic competencies (interpersonal trust, violation of reciprocity,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negative linguistic environments (verbal abuse at home and peer violence at school) with behavior of abusive language used by teenag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terpersonal trust, violation of reciprocity, and negative linguistic environments at home and at school each had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swearing amongst adolescents. However, participatory behaviors did not appear to have an effec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 also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future youth policy.

Key Words : 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linguistic environment, adolescent, cursing

투고일 : 9월 10일, 심사일 : 11월 5일, 심사완료일 : 11월 15일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